

06 2027학년도 수시

경쟁률 숫자에 속지 않는 법

표면과 실질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표면과 실질	3
03 언제 올라가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갈래별 경쟁률 중앙값 — 교과 9:1 · 학종 12.4:1 · 논술 36:1과 그 차이의 까닭
- ◆ **표면과 실질** — 결시·수능최저 미충족·중복 합격에서 빠지는 사람들
- ◆ 경쟁률이 움직이는 자리 셋 · **작년에 낮았던 곳은 올해 올라갑니다**
- ◆ 800:1 같은 숫자의 정체 · **실시간 경쟁률을 보고 자리를 갈아 끼우면 안 되는 까닭**

01 · 숫자부터

같은 숫자가 갈래마다 다른 뜻입니다

「경쟁률이 30:1이래요.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어느 갈래냐에 따라 답이 정반대입니다. 교과에서 30:1은 매우 높고, 논술에서 30:1은 평균보다 낮습니다. 경쟁률은 갈래를 건너 비교하면 안 되는 숫자입니다.

2027학년도 요강에 실린 전년도 경쟁률의 **중앙값**입니다.

갈래	경쟁률 중앙	30:1 은 여기서
학생부교과	9:1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학생부종합	12.4:1	높은 편입니다
논술	36:1	평균보다 낮습니다

논술 중앙값이 교과의 네 배입니다. 논술이 네 배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논술에 더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논술은 내신을 거의 안 보니 **지원 자격이 사실상 열려 있습니다**. 내신 1등급도 5등급도 같은 자리에 씁니다.

교과는 반대입니다. **내신으로 이미 걸러진 사람들만 씁니다**. 될 만한 사람만 쓰니 지원자가 적고, **대신 그 안의 경쟁이 촘촘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낮다로 어렵다·쉽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세고 있는 것이 갈래마다 다릅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에 실린 전년도 경쟁률을 저희가 집계. 교과 2,410줄 · 학종 2,542줄 · 논술 916줄의 중앙값입니다.

02 · 표면과 실질

지원자가 다 경쟁자는 아닙니다

표에 적힌 경쟁률은 「지원 인원 ÷ 모집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원한 사람이 다 끝까지 겨루지 않습니다. 세 군데서 빠집니다.

어디서	누가 빠지나	얼마나
1	결시 — 대학별고사에 안 옵니다	논술에서 특히 큼니다
2	수능최저 미충족 — 넘지 못해 탈락합니다	최저가 높을수록 큼니다
3	중복 합격 — 붙어도 안 옵니다	충원율만큼입니다

2번이 가장 큼니다

논술은 73%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그리고 논술 지원자에는 내신이 약해 수시 다른 문이 좁은 학생이 많이 섞입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표면 경쟁률이 높은 자리일수록 실질은 크게 내려갑니다. 특히 최저가 까다로운 자리가 그렇습니다. 최저를 확실히 넘길 수 있는 학생에게는 표면 경쟁률이 겁줄 이유가 못 됩니다.

3번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교과와 충원율 중앙값이 122%입니다. 정원만큼 다시 도는 것이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즉 실제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수가 모집 인원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경쟁률을 그대로 읽으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및 어디가 전형결과 집계. 실질 경쟁률은 대학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저희도 정확한 값을 모릅니다 —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만 말씀드립니다.

03 · 언제 올라가나

경쟁률이 움직이는 자리

경쟁률은 해마다 크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까닭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작년에 낮았던 곳은 올해 올라갑니다

모두가 같은 자료를 봅니다. 「작년에 낮았네」를 본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서 낮은 경쟁률은 스스로를 없앱니다.

거꾸로 작년에 유난히 높았던 곳은 올해 빠집니다. 경쟁률로 자리를 고르는 것이 잘 안 통하는 까닭입니다.

Q. 모집 인원이 줄면 올라갑니다

이건 가장 확실하게 예측되는 움직임입니다. 지원자가 그대로여도 나누는 수가 줄면 경쟁률은 올라갑니다.

요강에서 올해 모집 인원과 작년 인원을 나란히 보십시오. 여기서 크게 줄어든 자리는 작년 경쟁률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Q. 고사일이 겹치면 내려갑니다

논술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같은 날 시험을 치는 대학끼리는 서로 지원자를 나눠 갖습니다. 한 학생이 두 곳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사일이 몰린 날의 대학은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노리는 것도 남들이 다 아는 이야기라 기대만큼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쟁률로 유리한 자리를 찾는 일은 대체로 실패합니다.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률은 고르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는 자로 쓰십시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움직임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읽는 차례와 점검표

경쟁률을 볼 때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	무엇을	왜
1	같은 갈래 안에서만 견줄니다	갈래를 건너면 뜻이 달라집니다
2	모집 인원을 함께 봅니다	인원이 줄면 올라갑니다
3	수능최저를 함께 봅니다	높을수록 실질이 내려갑니다
4	세 해를 봅니다	한 해는 톱니다

3번이 실전에서 가장 값집니다. 최저가 까다롭고 경쟁률이 높은 자리는, 최저를 확실히 넘기는 학생에게 보이는 것보다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가 없고 경쟁률이 낮은 자리는 지원자가 다 끝까지 남아서 보이는 그대로가 실질입니다.

경쟁률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이 경쟁률이 어느 갈래 의 것인지 확인했는가

☐ 다른 갈래와 나란히 놓고 있지 않은가

☐ 올해 모집 인원 이 작년과 같은가

☐ 이 자리에 수능최저 가 걸려 있는가

☐ 그 최저를 내가 넘길 수 있는가

☐ 세 해 를 나란히 보았는가

☐ 작년에 유난히 낮지 않았는가

☐ 경쟁률로 지원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항목을 특히 보십시오. 경쟁률이 낮아서 쓰는 원서는 대개 후회로 끝납니다. 남들도 같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률 낮은 곳을 찾아 드립니다」는 광고를 믿지 마십시오. 경쟁률은 원서 마감 뒤에야 정해집니다. 마감 전에 낮은 곳을 아는 사람은 없고, 안다고 해도 그 정보가 퍼지는 순간 낮지 않게 됩니다. 차라리 최저를 한 등급 올리는 데 힘을 쓰십시오. 그건 확실하게 문을 넓힙니다.

05 · 자주 묻는 것

경쟁률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경쟁률 800:1 같은 곳은 뭔가요?

대개 모집 인원이 매우 적은 자리입니다. 한두 명을 뽑는 자리에 몇백 명이 쓰면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모가 작으면 경쟁률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입니다. 1명 뽑는 자리는 지원자가 조금만 늘어도 경쟁률이 확 됩니다. 이런 자리의 경쟁률은 해마다 크게 흔들려 참고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1명 뽑는 자리는 총원도 거의 안 듭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예비번호는 **번호 ÷ 모집 인원**으로 읽어야 하는데, 분모가 1이면 예비 1번도 총원을 100%가 필요합니다. 소수 모집은 **표면 숫자보다 실제로 더 좁습니다**.

Q.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보고 마감 직전에 넣으면 유리한가요?

넌리 쓰이는 방법이고, 그래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많은 지원자가 마감 직전에 넣습니다. 그래서 **마감 몇 시간 전의 숫자는 최종 경쟁률과 크게 다릅니다**. 낮아 보이던 곳이 마지막에 몰리는 일이 흔합니다.

게다가 실시간 경쟁률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끼리 같은 자리로 몰립니다. 낮아 보이는 자리에 다 같이 들어가니 **결과적으로 높아집니다**.

저희가 권해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쓸 자리는 미리 정해 두시고, 마감 직전 숫자는 순서를 바꾸는 데만 쓰십시오. 숫자를 보고 자리 자체를 갈아 끼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 급하게 고른 자리는 최저도 자격도 확인이 덜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경쟁률은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이 몰린 정도**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요강에 실린 전년도 경쟁률과 공개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경쟁률은 심지 않습니다. 실질 경쟁률은 대개 공개되지 않아 방향만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